

농촌 마을회관의 노인 복지서비스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 평면과 이용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

Conceptual Directions of Village Community Center into a Rural Elderly's Welfare Service Space in Chonbuk Province

최 병숙* 박 선희* 오 찬옥** 홍 찬신*** 임 상봉****1)
Choi, Byungsook, Park, Sunhee, Oh, Chanok, Hong, Chansun, Im, Sangbong

ABSTRACT

This purpose was to explore various directions of elderly service welfare space in village community center. Data were collected 3 types that floor plans of village community centers from 24 villages, interview data of these centers use and needs from 24 aged leaders or 96 elderly .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1) The floor plans of more than 50% was type IV that was composed a basic spaces(entrance, living room, two rooms, kitchen), a toilet space, a heating system space and a storage space. This type was a current basis of the rural village community centers for elderlies. 2) Elderlies used the centers at winter or out of agricultural season, and visited these to pass the time and to promote friendship among them. 3) Also they went these to take a meal together and to save down personal heating expenses. Their needs for centers were a temporary share dwelling space at winter, a maintain social relationship throughout a health, a education and a side work activity, supplying health or sports facilities, and setting up toilet space. Therefore the current centers were needed to add functions of a temporary share dwelling, a energy saving heat system and a social promoting relationship, and so these could be represented to a elderly welfare service center in rural villages.

키워드: 노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복지서비스공간

Key words: elderly, rural area, village community center, welfare service spa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 전북대학교 아동·주거전공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 인제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 교신저자,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 연구는 농림부 농촌개발연구비로 농어촌연구원과 인간생활과학연구소에서 공동 수행한 2005년 고품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의 일부임.

농촌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시설로는 마을회관으로 불리는 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따라 장려재의 공공 투자 성격으로 설치되었지만, 농촌 마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노인회관(노인정), 정자목 공간 중 특히 마을회관은 대부분의 농촌마을에 설치되어있고, 주민들에게는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공동시설이다2).(송미령, 박시현, 2005; 한경혜,

2) 농촌 주민 대상으로 580부를 우편조사 분석한 송미령과 박시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있지만 유용하게 이용되지 않는다(15.4%)”,

김주현, 강혜원, 2005: 홍찬선, 최병숙 외, 2005)

농촌 사회가 고령화로 치닫되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을회관이 농촌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중심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을회관에 관한 새로운 요구³⁾가 제시되고 있고, 단순한 주민 사랑방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마을회관의 공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농촌의 마을회관은 고령화의 대응과 더불어 건강, 웰빙 등 고려하여 공간계획에서도 다양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특히 주민 인구의 다수가 노인으로써 일부 마을에서 식사, 숙소의 기능까지 수용한 사례는 향후 마을회관이 지속 설치되거나 개축하는 경우 노인을 위한 공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농촌 마을의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촌 노인을 위한 마을 단위 복지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기존 마을회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한다(73.7%)”, “없어서 불편하다(9.0%)”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농촌체험마을의 경우는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개보수하는 현상(조선일보, 2003. 8. 2), 마을회관에서 겨울철 노인들의 식사, 잠자리까지 공동생활을 하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문화일보, 2006. 1. 26). 또한 노인들의 부업 작업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며(조선일보, 2006. 3. 3), 담소, 장기, 화투놀이의 소일이의 식사와 잠을 자기도 하고 독거노인의 경우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세계일보, 2006. 4. 27).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방을 설치하는 움직임도 있고(부산일보, 2005. 10. 13), 더 나아가 낡고 노후한 기존 마을회관 실내를 개조, 체력단련실, 건강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조리실 그 외 부대시설로 목욕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회관을 웰빙 센터로 탈바꿈되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 10. 31).

관 혹은 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계획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농촌마을에 설치된 노인 이용 공동시설로 마을회관·경로당의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하고, 평면을 유형화 한다.

2) 현재 농촌마을에 설치된 마을회관·경로당에 대한 공간이용행태를 파악하여, 공간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을 유형화 한다.

3) 1), 2)의 결과 평면 유형과 공간적 요구 기능의 유형을 각각 종합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 공간의 계획방향을 모색한다.

2. 마을회관의 변천

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1970년대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건립되었다. 당시 마을 단위 새마을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잦은 주민 회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새마을회관이 설치되었다. 새마을회관은 공식적인 주민 회의를 위한 용도의 공동시설이었다. 새마을회관은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겨울에는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고, 공식적인 모임이외에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로서 활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새마을회관은 마을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1980년대에도 계속 설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1970년대 행정리 별로 1개소씩 공급된 새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단순하여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마을 단위 커뮤니티 시설로서 증축·개축 위주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시작된 마을회관의 정비는 1990년대 전 기간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일부 경로당의 기능과 결합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과는 별도로 경로당을 설립함으로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일상의 소일거리로 이용하는 시설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대부터는 건강관련 공동시설에 대한 농촌 주민의 수요가 증대되자 기존 마을회관 혹은 노인회관 등과 같은 기존의 공동시설에 건강 관련 기능을 부가하였다. 건강 관련 공동시설로서 '목욕+찜질+운동'등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농촌진흥청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마을회관에 컴퓨터 장비가 공급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교육 등에 필요한 정보화의 기초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박시현, 2005)

이와 같이 마을회관은 오랫동안 주민회의, 공식적 모임 등의 커뮤니티 시설로서 과거부터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루고 있고, 최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농촌 정보와 관련 공동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일부 마을회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이 고령화 되고 일부 마을에서 마을회관의 노인공동생활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한 마을회관 정비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마을선정

조사마을은 '군→읍·면→리'의 단계를 거쳐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군(순창군, 임실군)을 선정하였다. 2단계 읍·면단위의 선정은 1개 군 당 노인인구 비율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상중하의 3개 면단위를 선정하였고, 읍 단위를 추가하였다⁴⁾. 3단계 리 단위의 선정은 면단위에서 노인인구 비율 상중하를 기준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최종 24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선정된 24개 마을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

4) 읍은 일반 면단위과 차이가 있는 농촌지역이므로, 면단위와 읍단위를 구분 선정하였다.

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평면을 실측 조사하였다. 그리고 노인 및 마을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이장, 노인회장, 노인회 총무를 중심으로 마을마다 면접조사가 가능한 대표자를 한명씩 선정하였다. 총 24명의 대표자 선정하였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한 개방형 설문에 기초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을마다 남녀 노인 2명씩 선정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요구를 면접 조사하였다. 평면 및 면접의 자료 수집은 2005년 8월 22일 부터 2005년 9월 4일까지 훈련받은 학생 조사원이 실시하였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실측 평면자료는 공간구성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였고⁵⁾, 이용행태에 관한 면접자료는 전문가가 유목화한 후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 통계를 구하였다.

한편 24개 마을 중 23개 마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개 마을은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건물이 아직 없는 상태였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23개 마을에서 2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개 마을에서 할머니 경로당이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5개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물 중 1개는 무허가 가설건물에 임시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층 건물인 경우(3사례)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공간 층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1층을 노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분석 자료로 사용된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의 평면 24개였다.

4. 조사 자료의 분석 및 결과

4.1 건축 개요

(1) 건물 설치 유형

농촌마을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건물 현황을 파악하

5) 전체적인 평면형상을 유사한 형태끼리 유목화와 각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명칭 유목화하는 방법으로 질적분석을 하였다.

면, 표 1과 같이 마을회관 건물만 설치된 경우와 마을회관 건물에 경로당이 겸용 설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마을회관에 이렇게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고령화하면서 정부로부터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혜하여 노인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의 경로당이 별도로 설치되지 보다는 주민 시설과 결합된 형태가 다수였다.

표 1. 조사마을의 마을회관/경로당 건물설치 유형

마을회관/경로당 건물 설치 유형	사례수 (%)
마을회관 건물에 경로당 겸용 설치*	7(29.2)
마을회관 건물만 설치	10(41.7)
경로당 건물만 설치	4(16.7)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물이 독립 설치**	2(8.3)
마을회관, 경로당이 마을 내 없음***	1(4.2)
계	24(100.0)

*마을회관에 경로당 현판 설치

**마을회관-할아버지, 경로당-할머니 사용

***부지만 있는 상태

(2) 건축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건축시기를 파악하면, 표 2에서와 같이 1996년-2000년 사이 건축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새마을회관으로 출발한 마을회관이 1996년의 시점에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거나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당시 지자체의 수립으로 지역 내 시설이 정비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사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약 60%는 1996년 이후 건축된 10년 미만의 시설임을 알 수 있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약 20% 였다.

(3) 건물층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물의 83.3%(20사례)는 1층이었고, 16.7%(4사례)가 2층 건물의 형식이었다. 2층인 경우는 복지회관과 겸용한 경우로 1층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노인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 외 마을회관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한 경우이거나 당초 2층으로 건축한 경우였으며, 1층을 주로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활용하였다.

(4) 마을회관/경로당 면적

마을회관/경로당의 건물의 면적을 실제 사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표 3>, 평균 28.3평(93.4㎡)이었다. 최소 11.9평에서 최대 58.1평 까지 분포하였으며, 주로 20평 이상 30평 미만의 건물규모(66.7%)가 많았다. 농촌지역이 건축법상 100㎡까지 신고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로 30평 미만의 건축물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마을회관/경로당 면적

마을회관/경로당 면적*	사례수(%)
20평 미만	2(8.3)
20평 이상 - 30평 미만	16(66.7)
30평 이상 - 40평 미만	3(12.5)
40평 이상	3(12.5)
계	24(100.0)
평균(SD)	28.3평(9.8평)

*2층인 경우 실제 사용하는 1층면적을 기준함

4.2 공간구성 특성

(1) 평면형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평면형상을 파악한 결과 주로 직사각형에 일부 변화를 준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사각의 상자형에 계단설치, 전면 출입공간의 캐노피가 변화를 준 요인이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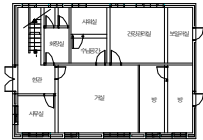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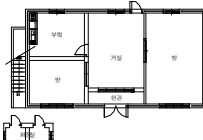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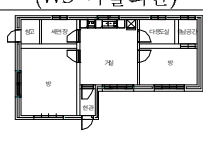
표 2. 마을회관/경로당 건물설치 유형과 건축년도(단위: 사례수(%))

건축년도	1980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계
마을회관/경로당 건물설치 유형	까지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이후	
마을회관 건물에 경로당 겸용 설치	-	2(8.3)	-	1(4.2)	3(12.5)	1(4.2)	6(29.2)
마을회관 건물만 설치	1(4.2)	1(4.2)	-	1(4.2)	5(20.8)	1(4.2)	9(37.5)
경로당 건물만 설치	-	1(4.2)	-	-	1(4.2)	2(8.3)	4(16.7)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물 독립 설치	-	-	1(4.2)	1(4.2)	1(4.2)	1(4.2)	4(16.7)
계	1(4.2)	4(16.7)	1(4.2)	3(12.5)	10(41.7)	5(20.8)	24(100.0)

*마을회관, 경로당 건물이 독립 설치된 경우 각각 건물의 건축년도로 제시함.

중 특히 옥상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측면 계단설치와 전면 출입구 부분의 캐노피가 설치된 직사각형 형태가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평면은 출입구 부분과 연결된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공간이 배치된 형태였다. 이와 같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평면형상은 주로 단순한 형태와 공간배치를 나타내었다.

표 4. 마을회관/경로당 평면형상 사례 및 분포

평면형상	평면사례	사례수(%)
직사각형	 (NK 마을회관)	2(8.3)
직사각형-측면부 계단 돌출형	 (KJ 마을회관)	5(20.8)
직사각형-전면부 캐노피 돌출형	 (KS 마을회관)	2(8.3)
직사각형-전면부 캐노피 +측면부 계단 돌출형	 (WS 마을회관)	12(50.0)
기 타 형	 (SH 마을회관)	3(12.5)

*기타형은 기형, 직사각형-후면부 돌출형, 직사각형-측면과 우 돌출형인 경우임

(2) 평면구성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실내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유육화하여 파악하면, 표 5에서와 같이

기본공간, 생리위생공간, 보관공간, 난방공간, 보조공간, 건강공간, 사무공간, 기타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본 공간은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되었으나, 보조공간, 건강공간, 사무공간은 그 설치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

표 5. 마을회관/경로당의 공간

구분	공간명칭	설치빈도(%)	비 고
기본	현 관	24(100.0)	
	방 2개	23(95.8)	방 3개(1사례)와 방 1개(1사례)인 경우를 포함시킴
	거 실	23(91.7)	
생리 위생	주 방	22(91.7)	주방이 2개인 경우 있음(1사례)
	세면장	8(33.3)	세면실이라고도 부름
	욕실/샤워실	2(8.3)	
보관	실내화장실	8(33.3)	화장실이 2개인 경우 있음(2사례)
	실외화장실	13(54.2)	화장실 2개(7사례), 3개(1사례)인 경우 있음
난방	수납공간	9(37.5)	볼락이장인 경우(1사례) 있음
	실내창고	9(37.5)	창고가 2개인 경우(1사례) 있음
	실외창고	2(8.3)	
보조	보일러실	14(58.3)	보일러실과 창고를 겸하는 경우(3사례), 계단실 하부 이용 외부와 연결된 경우(2사례) 있음
건강	다용도실	3(12.5)	
사무	건강관리실	3(12.5)	운동실(1사례), 찜질방(1사례)를 포함시킴
	방송실	3(12.5)	
기타	사무실	1(4.2)	
	탈의실	1(4.2)	

구체적으로 공간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본 공간에서 현관은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사례를 제외하고는 방과 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방은 2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즉,

표 6. 마을회관/ 경로당의 평면 유형별 공간구성 내용 및 분포

유형	공간 구성 내용 및 예	사례수(%)
유형 I	기본적 공간 구성 평면	1사례(4.2)
유형 II	기본적 공간구성+난방 중심의 평면 -기본적 공간 구성+난방(1) -기본적 공간 구성+난방+생리위생(1)	2사례(8.3)
유형 III	기본적 공간구성+생리위생(화장실) 중심의 평면 -기본적 공간 구성+생리위생(화장실)(1) -기본적 공간 구성+생리위생(화장실)+보관(1) -기본적 공간 구성+생리위생(화장실)+a공간(방송실)(1)	3사례(12.5)
유형 IV	기본적 공간구성+난방+생리위생(화장실)+보관 중심의 평면 -기본적 공간 구성+난방+생리위생(화장실)+보관(1) -기본적 공간 구성+난방+생리위생(화장실)+보관+a공간(2) (다용도실, 운동실, 방송실)	3사례(12.5)
유형 V	기본적 공간 구성+난방+생리위생+보관의 평면	7사례(29.2)
유형 VI	기본적 공간 구성+난방+생리위생+보관+a공간 중심의 평면 (방송실, 다용도실, 찜질방, 탈의실)	4사례(16.7)
유형 VII	기본적 공간 구성을 갖추지 못한 평면(주방, 방, 거실이 없음) -거실 없는 기본공간구성+생리위생(화장실) -방이 없는 기본공간구성+난방+a공간(방송실) -주방이 없는 기본공간구성+생리위생+보관+a공간(건강관리실, 사무실) -주방이 없는 기본공간구성	4사례(16.7)
계		24사례(100.0)

현관, 방, 거실, 주방이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된 기본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생리위생공간에서는 실내외 화장실의 설치가 가장 많았으나, 7사례의 경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치율이 58.3%(14사례)로 나타났다. 보관공간으로는 수납 혹은 실내외에 창고를 두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의 활동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보일러실의 난방을 위한 공간이 58.3%에 계획되어 있었다. 적은 계획사례이지만, 다용도실의 보조공간, 운동실, 찜질방의 건강관리실이 계획된 건강공간, 방송실과 사무실의 사무공간, 기타 탈의실이 계획되었다.

(3) 평면의 유형화

마을회관/경로당의 평면을 구성하는 공간 중

표 5에서 그 설치율이 전체의 1/2이상인 공간을 중심으로 평면의 유형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설치율에 따라 공간유형을 파악하면, 첫째, 50%이상 공간은 기본공간 > 난방공간(보일러실) > 생리위생공간(화장실)의 순이었고, 50%미만 30%이상 공간은 보관공간 > 생리위생공간(욕실, 샤워실, 세면실)이었다. 30%미만 10%이상 공간은 보조공간(다용도실, 건강공간(건강관리실, 운동실, 찜질방), 사무공간(방송실)이었고, 10%미만 공간으로는 기타 공간(탈의실)이 있었다.

따라서 평면의 유형 작업에서 1차적으로 ‘현관, 방2, 거실, 주방’을 기본적 공간구성으로 설정하였고, 난방 공간, 생리위생공간(화장실), 생리위생공간(욕실, 샤워실, 세면실), 보관공간, a공간(보조, 건강, 사무, 기타 등)의 순으로 설치 여부에 따라 다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조사된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의 평면유형을 표 6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사례는 그림1과 같다.

평면유형별로는 기본적인 공간구성에 난방, 생리위생, 보관의 기능을 갖춘 유형V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유형V에 건강 혹은 사무의 기능을 갖춘 α공간이 설치된 유형VI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런 유형V와 유형VI는 표 5의 공간 설치율이 보편적인 50%에서 30% 수준의 공간기능인 보관, 생리위생(욕실, 샤워실, 세면실)이 부가된 경우였다. 그리고 유형 IV는 표 5에서 제시된 공간 설치율이 50%인 기본, 난방, 생리위생(화장실)을 중심으로 30%수준의 보관 기능만 추가된 경우였다. 그러나 마을회관/경로당의 물리적 환경 수준이 공간 설치율 50%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조합된 경우가 25%(6사례)의 유형 I·II·III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으로 다수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갖춘 공간을 최소 기준이라고 한다면, 조사결과에서 25%는 최소 공간구성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표 2의 결과를 함께 생각할 때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건축시기에 따른 노후화 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공간구성의 질적 수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3 노인의 공간이용 행태⁶⁾

(1) 노인가구 개요

24개 마을에서 전체 가구수(평균=46.0, 표준편

차=34.8)를 중심으로 노인이 살고 있는 가구수(평균=26.1, 표준편차=17.1)와 노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수(평균=12.8, 표준편차=10.3)를 파악한 결과, 그림 2로 나타났다. 평균 전체 가구수에서 노인이 있는 집은 56.8%였고, 노부부만 사는 집은 27.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인이 살고 있는 가구 중 약 50% 정도는 부양 가족이 없는 것이며, 마을 전체 가구 중에서는 약 20-30%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가구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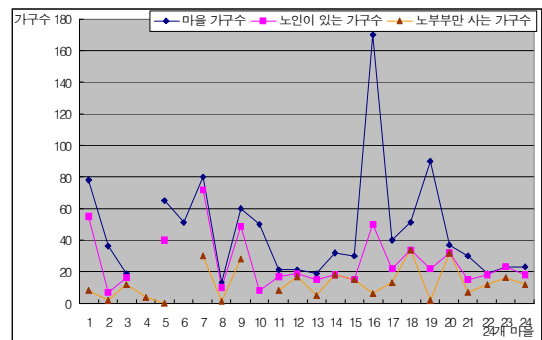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마을 노인가구 개요

(2) 노인의 낮 시간 생활

노인들의 낮시간 생활이 여름과 겨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그림3, 그림4), 여름철 낮 생활로는 주로 농사일을 하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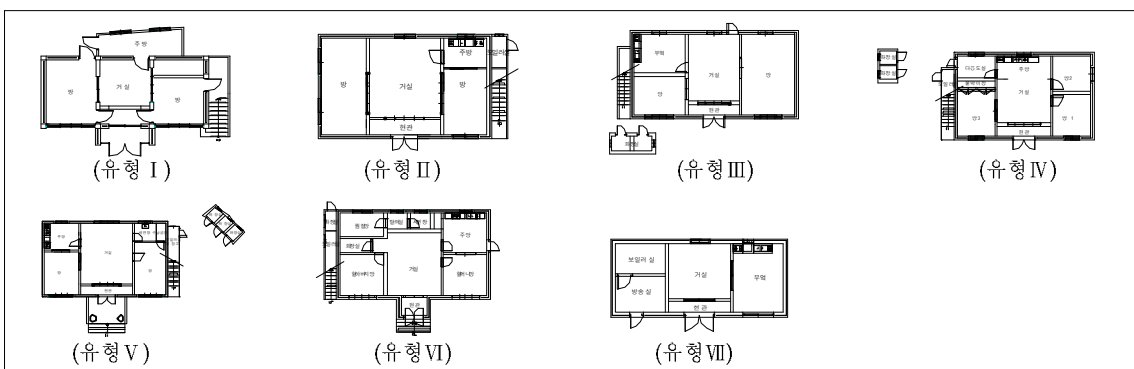


그림 1. 마을회관/경로당의 평면 유형별 대표적 평면 사례

6) 노인현황을 알고 있는 24개 마을대표자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가 3개 마을(12.5%)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겨울철 낮 생활을 마을회관이나 경로

당에서 보내는 경우는 22개 마을(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여름철에 비하여 겨울철 낮 시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여름철의 경우에는 기후적 이유 때문으로 모정 시설물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회관, 노인정, 모정과 같이 노인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적 시설물이 실제적으로 매우 잘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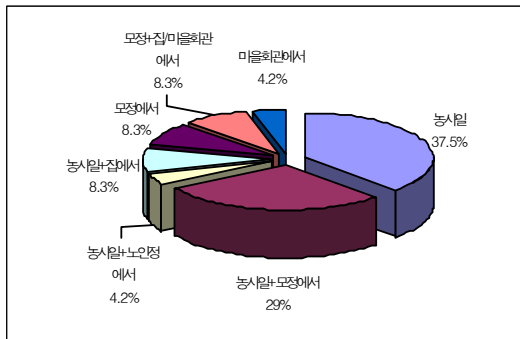


그림 3. 여름철 노인들의 낮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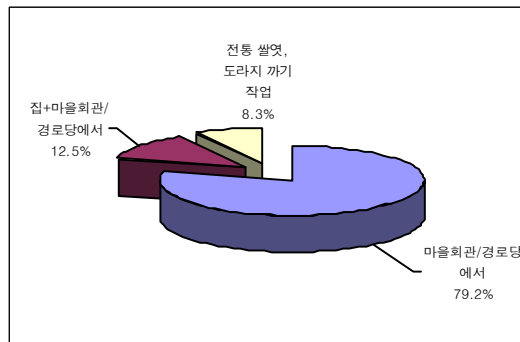


그림 4. 겨울철 노인들의 낮 생활

(3)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 빈도

이용 빈도를 파악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여름(농번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나 겨울(농한기)를 중심으로 매일 혹은 자주 이용하는 것(47.8%, 50.0%)으로 나타났으며, 겨울(농한기) 매일/자주 이용하고 여름(농번

기)에 가끔 이용하는 경우(26.1%, 22.7%)로 나타났다.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할아버지(8.7%) 보다 할머니(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노인 대표자의 대답에는 무더운 한여름을 제외한 의미에서 겨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실제 마을회관/경로당의 이용 빈도는 바쁜 농사철과 무더운 여름을 제외한 시기에는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빈도

이용 빈도	이용자	할아버지	할머니
겨울(농한기) 매일/자주		11(50.0)	11(50.0)
겨울(농한기) 매일/자주+여름(농번기) 가끔		6(27.3)	5(22.7)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자주		2(9.1)	3(13.6)
기 타*		3(13.6)	3(13.6)
계		22(100.0)	22(100.0)

*겨울(농한기) 가끔, 별로 이용하지 않음, 여름(농번기) 자주, 여름(농번기)자주+겨울(농한기)가끔

(4)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자

시설 이용자를 파악한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노인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관은 경로당 보다 노인만(22.2%)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노인이외 부녀자 및 마을주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로당의 노인만(50.0%)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경로당 역시 부녀자, 마을주민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회관이 노인 보다는 마을 전체를 위한 시각에서 건립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다목적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로당은 노인을 위해 건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로 볼 때 마을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기에는 현재로는 경로당이 더욱 적합하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주민이 더욱더 고령화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의 대

부분의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다기능적인 노인 복지시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자(단위: 마을수(%))

이용자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만 이용	4(22.2)	4(50.0)
노인/부녀자 이용	4(22.2)	2(25.0)
노인/부녀자/마을주민 이용	8(44.4)	1(12.5)
마을주민 모두 이용	2(11.1)	1(12.5)
계*	18(100.0)	8(100.0)

*마을회관 설치 18개 마을, 경로당 설치 8개 마을 응답

(5) 공간이용 이유

노인들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외로워서 놀러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러 나와서는 주로 이야기, 사람들과 만남, 운동이나 화투 놀이 등을 통해서 친목도모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노인들의 낮 생활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마을회관/경로당을 이용하는 것과 연계해 볼 때 노인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회관/경로당은 단순히 노인들이 심심하고 외로워서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나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주로 찾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표 9.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 이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 이유	마을수(%)
심심하거나 외로워서 놀러 (이야기, 만남, 운동, 화투 등의 놀이)	14(60.9)
심심하거나 외로워서 놀러+식사	5(22.0)
심심하거나 외로워서 놀러+난방비 절약	2(8.7)
심심하거나 외로워서 놀러+식사+난방비 절약	2(8.7)
계	23(100.0)

(6) 공동식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공동식사를 하는 경우가 95.7%로 파악되었다. 주로 농한기를 중심으로 공동식사를 하는 경우가 71.4%, 농번기에는 공동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95.2%였으며, 농한기를 중심으로 거의 매일 식사를 하는 경우가 7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주로 점심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95.7%였고, 저녁식사까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5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농한기를 중심으로 점심위주의 공동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녁 식사까지도 약 1/2 정도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10.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공동식사 행위

구분	내용	마을수(%)
공동식사	한다	22(95.7)
	하지 않는다	1(4.3)
농한기	공동식사 한다	15(71.4)
	공동식사 하지 않는다	6(28.6)
농번기	공동식사 한다	1(4.8)
	공동식사 하지 않는다	20(95.2)
매일여부	매일 한다(농한기 중심)	15(75.0)
	매일하지 않고, 가끔 혹은 생선 때로 일정치 않음	5(25.0)
점심식사	공동으로 한다	22(95.7)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	1(4.3)
저녁식사	공동으로 한다	12(54.5)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	10(45.4)

*응답을 회피한 경우 무응답 처리함.

그러나 앞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 이유와 비교해 볼 때 현재 공동식사를 행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것이 마을회관/경로당을 찾는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즉, 노인들에게 식사가 문제이기 보다는 심심하고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에게 심심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식사가 부가되어야지, 식사가 우선되고 심심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4.4 노인의 공간적 요구⁷⁾

(1) 불편 및 요구사항

조사대상 96명의 노인 중 54명은 현재 마을회관/경로당에서 불편한 점이 없다거나 현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노인 41명이 불편한 점 한 가지씩 응답하였으며, 41명의 노인 중 5명의 노인은 2가지의 불편한 점을 응답하였다.

노인들은 마을회관/경로당의 실내 온열환경인 냉난방이 좋지 않아 여름에 더운 점과 겨울에 추운 점을 지적하였고(34.8%), 다음으로 32.6%가 여가, 운동, 의료, 방송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실내 화장실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하여 화장실이 불편하다(13.0%)와 공간이 좁다(8.7%)는 지적을 하였다.

표 11.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불편한 점

불편한 점	빈도(%)	비교(지적건수)
시설이 부족 및 확충 필요	15(32.6)	여가시설(2), 방송시설(1), 운동기구(2), 의료기구(1)
겨울에 추움, 여름에 더움	16(34.8)	난방 불충분(1), 에어컨 설치 요구(2) 겨울 추움(3), 여름 더움(8)
불편한 화장실	6(13.0)	실내 없음(3)
좁은 공간	4(8.7)	현재 상태의 공간이 좁음
운영비, 관리비 부족	2(4.3)	
기 타	3(6.6)	바닥 습기 참(1), 이불 부족(1), 경로당설립필요(1)
계	46(100.0)	

이러한 불편사항 중 냉난방, 시설부족을 앞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 이유와 비교해 볼 때, 개별 노인들이 낮 동안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점이 있으므로 난방이 개선된다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

설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로 심심하고 외로워서 소일하기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는다고 한 바, 시설이 부족하다 역시 운동이나 의료시설 혹은 여가시설을 매개로 소일거리를 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설의 제공 역시 마을회관/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노인의 지원 요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노인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1, 2, 3 순위의 요구내용 표13을 종합한 결과 그림 5 에서와 같이, 전체의 20%이상 요구를 제시한 것은 식사>시설/설비확충>교류증진 순이었고, 10%미만의 소수의 요구에서는 교육 > 부업 > 비용 >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2,3 순위의 요구에서 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동식사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시설/설비 확충은 1, 2순위에서운동기구 및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의료기구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나 시설이었다. 앞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불편한 점에서 시설/설비 부족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건강관리에 대한 운동 및 의료기구 및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빨래 및 세탁시설, 찜질방 및 샤워장, 마을문고, 전화, 냉난방 관련 에어컨 등에 대한 소수 요구도 있었다. 교류증진에 대한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 놀이를 통한 교류기회 증진으로 화투, 장기, 바둑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바둑, 장기는 할아버지가 제시한 요구였고, 화투는 할머니가 제시한 요구였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친목도모는 주로 할머니에게서 제시된 요구였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용이 심심해서 외로워서인 이유로 볼 때, 서로 교류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7) 24개 마을에서 남녀 노인 각각 2명씩을 선정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표 12.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지원 요구

노인의 지원 요구		1순위 요구	2순위 요구	3순위 요구	계
식사	공동식사/세 끼식사/식사해결	31(36.0)	20(29.4)	17(50.0)	68(36.2)
시설	운동기구/시설	15(17.4)	14(20.6)	1(2.9)	30(16.0)
설비	의료기구/안마기	11(12.8)	4(5.9)	3(8.8)	18(9.6)
확충	찜질방/샤워장	-	1(1.5)	1(2.9)	2(1.1)
	빨래/세탁시설	3(3.5)	2(2.9)	-	5(2.7)
	마을문고	1(1.2)	-	-	1(.5)
	기타(공동전화, 에어컨, 냉난방 등)	2(2.3)	3(4.4)	-	5(2.7)
교류 증진	놀이(화투, 장기, 바둑 등)	8(9.3)	11(16.2)	7(20.6)	26(13.8)
	담소, 이야기, 대화 등	5(5.8)	2(2.9)	-	7(3.7)
	친목 유지	5(5.8)	3(4.4)	-	8(4.3)
교육	노인 교육, 컴퓨터	-	4(5.9)	3(8.8)	7(3.7)
비용	난방비, 운영자금 지원 확대	2(2.3)	1(1.5)	-	3(1.6)
부업	일거리, 부업	1(1.2)	3(4.4)	2(5.9)	6(3.2)
기타	모정 크게	1(1.2)	-	-	1(.5)
	회관 하나 더	1(1.2)	-	-	1(.5)
계		86(100.0)	68(100.0)	34(100.0)	18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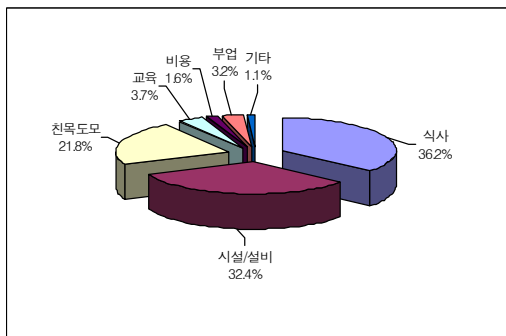


그림 5.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지원 요구

(3) 마을회관 중심의 개조 요구

현재 마을회관을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려는 방향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은 마을회관의 경우는 노인만 이용(11.5%)하는 시설로 개조하기 보다는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마을사람들이 이용(83.3%)할 수 있는 현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관을 노인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경우 전체 노인이 낮 시간에만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였고, 공동 사용과 일부 노인에게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37.5%였다. 그리고 노인들이 밤낮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29.2%였다. 밤낮의 사용을 반대하고 낮 시간에만 공동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밤 시간 사용자와 낮시간 사용자를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마을회관을 공동생활을 위한 동거의 장소로 개조할 경우 표15에서와 같이 반대 의견이 24.0%로 제시된 것으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표 13.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의 마을회관 개조 요구

구분	내용	빈도(%)
이용자	노인을 포함 모든 마을사람 이용	80(83.3)
	노인만 이용	11(11.5)
	기 타	5(5.2)
노인을 위한 방향	노인이 낮 시간에만 공동 사용	32(33.3)
	노인들에게 집처럼 밤낮으로 생활하게 하고 잠도 자게 함	28(29.2)
	노인들이 낮 시간에 공동사용하고 일부 노인들의 경우 집처럼 생활	36(37.5)
계		96(100.0)

앞으로 더욱더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의 시설을 노인의 공동생활을 위한 개조로 나아가고자 할 때, 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파악한 표 15의 결과 공동식사와 아픈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일시 거주로 개조하는 방안은 적극찬성과 찬성의 비율

이 58.5%, 88.4%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위한 동거는 그 비율이 63.5% 앞의 두가지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이 낮았다.

표 15. 공동식사, 동거, 아픈 독거노인 일시 거주에 대한 노인 의견

의견	공동 식사 의사	일반 노인 동거(공동생활) 의사	아픈 독거노인 일시 거주 의사
요구			
적극 찬성	34(35.4)	20(20.8)	38(40.0)
찬 성	50(52.1)	41(42.7)	46(48.4)
보 통	2(2.1)	9(9.4)	4(4.2)
반 대	10(10.4)	23(24.0)	7(7.4)
매우 반대	-	3(3.1)	-
계	96(100.0)	96(100.0)	95(100.0)

따라서 마을회관은 노인과 마을주민 모두의 시설로 하되, 특히 노인으로서 한정할 경우 낮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시설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공동식사, 아픈 독거노인을 일시적으로 이동 거주하게 하여 돌보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의 동거 기능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마을회관을 찾는 이유로 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언급한 점과 노인 개인의 경제력을 검토하여 볼 때, 그리고 최근 이상기 후에 따른 추운 날씨, 폭설, 장마로 인한 고립 등을 우려하여 계절적 일시동거 기능의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조사한 농촌마을 24곳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관한 공간구성과 마을대표자 24명, 일반노인 96명을 중심으로 이용행태 및 요구 측면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공간구성 중 평면 형태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평면을 중심으로 출입구 부분의 캐노피 처리와 측면부의 계단 처리에 따라 상자형에서 일부 돌출 공간이 있는 형태

였다. 그리고 평면의 유형은 설치공간을 중심으로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설치율이 50%이상은 유형Ⅳ였다. 이것의 평면구성은 현관, 방2, 거실, 주방의 기본공간에 난방, 화장실의 생리위생, 보관 공간으로 구성된 형태였다. 유형Ⅳ는 조사 자료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되는 공간들로 조합된 형태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평면구성 계획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즉, 기본적인 공간에 난방, 생리위생(화장실), 보관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현실적인 수준의 평면구성을 갖추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유형Ⅳ가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에서 노인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집과 같이 낮 시간 동안 생활하는 공간으로 볼 때 물리적 공간구성의 최소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유형Ⅰ, Ⅱ, Ⅶ는 평면구성 차원에서 기능적 지원이 미흡하였고, 유형Ⅲ은 일상생활의 기능은 이루어지지만 보관 수납의 보완이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형Ⅳ를 기준으로 기존 시설의 공간기능 지원의 미달을 판단하고, 공간적 보완을 하기 위한 마을회관 개조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형태는 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의 농한기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절적 제한이 있었고, 이용자는 노인을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 공동시설을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공간으로 활용하되, 마을주민의 이용을 반드시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단순한 친목도모이외 노인들의 공동식사 및 겨울철 개인 난방비를 우려한 점이었다. 이 역시 이용행태가 겨울인 점 감안해 볼 때,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단순히 심심함을 해소하는 교류의 장소에서만 차원 나아가 식사를 지원하고, 계절적인 공동주거의 기능이 가능한 측면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요구 조사결과에서도 식사 및 공동동

거의 요구가 제시되었고, 선행연구(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5) 역시 겨울철 농한기 중심의 이용이라고 하였다. 최근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점, 노인의 경제력이 취약한 점,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아 부양 및 케어가 필요함 점 등을 생각하면 공동주거의 기능을 한시적인 계절로 제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돌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 아픈 경우 이들을 일시적으로 이동 거주시켜 케어 할 수 있는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노인을 위한 계획으로 시도하고자 하고, 좀더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계절적 공동주거 혹은 일시 케어를 위한 물리적 공간과 난방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노인들이 건강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사 및 그 외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을 상호 결합하여 마을단위에서 진정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공간적 요구를 보면 좁고 더움의 불편을 언급하였다. 난방비 절약을 이유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한 바, 추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이용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화성시의 경우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에서 마을회관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설치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냉난방 환경에 관한 개조계획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심심해서 소일거리를 찾아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교육, 부업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용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설 설비와 더불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와 관련된 운동, 의료기구 등을 갖추고 이를 활용한 프로

그램, 컴퓨터 장비를 갖추고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유형Ⅳ를 기준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이 연계 제공된다면, 질 높은 마을 내 노인복지서비스 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농촌 마을회관, 경로당의 노인복지서비스 시설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난방 개조와 함께 계절적 혹은 아플 때 일시적인 공동주거, 건강, 교육, 부업 등을 매개로한 친목이나 교류활동, 공동식사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고령화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의 케어를 마을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김창국(1996). 농촌 경로당의 이용실태와 평면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2). 15-26.
2. 김창국, 김수인(1993). 평면구성과 입면형태에 의한 경로당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2). 48-62.
3. 박경옥, 조현주, 이상운(2004). 농촌지역 폐교의 노인복지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 49-58.
4. 송미령, 박시현(2001). 농촌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연구보고 R4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농촌사회 15(2). 85-131.
6. 홍찬선, 임상봉, 최병숙, 박선희, 오찬옥, 박정란(2005).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1차년도). 농림부, 농어촌연구원.
6. 첨진강변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농촌체험마을'로 다시 뜬다. 조선일보 2003. 8. 2일자. 호남 A10면.
7. 뛰는 기름값 무서워... 마을회관서 먹고 자고. 문화일보 2006. 1. 26일자.

8) 한국가스시설공사(2006). '마을회관도 지열에너지' http://cafe.naver.com/4000kgm.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19

8. 美서 동구미(짚으로 만든 전통 그릇)1000만원어치 주문...온 마을이 '덩실' 피산 명덕마을 노인들 “마빠도 신나”. 조선일보 2006. 3. 3일자 사회 A14면.
9. 경로당을 농촌노인들 웰빙공간으로 가꾸자. 세계일보, 2006. 4. 27일자.
10. 농민 건강방서 피로 푸세요. 부산일보. 2005. 10. 13일자.
11. 마을회관이 웰빙센터로 탈바꿈,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 10. 31.
12. 전남, 농촌 5곳 테마마을 개발. 연합뉴스. 2004. 4. 6
13. I.Altman, M.P.Lawton, J.F.Wohlwill(1984).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lenum Press, New York.